

世界經濟 展望과 經營戰略

閔 玉 仁

〈京畿大學經營學教授〉

I. 끈질긴 인플레이와 不景氣

세계적인 인플레이와 不景氣의 複合作用 속에서 緊張과 不安이 75년의 캘린더를 4월 上旬까지 넘기게 된 요즈음에도 이렇다 할 緩和나 小康을 보이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지난 해 1년 동안은 허구많은 國際社會 經濟專門家들의 각종 專門的인 景氣展望이나 各國政府의 景氣回復의 努力을 實로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再作年 10월 4次中東戰이 오일 쇼크를 물고 온 뒤를 이은 國際 인플레이와 不景氣가 74년의 1년 동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激化一路의 상황일 것을 豫測, 發表하여 結果的으로 的中시킨 經濟專門家は 없었고 또 인플레이와 不景氣 退治를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소기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他共認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豫想할 專門家가 없었고 各國의 政策效果를 너무도 작게 만들어 버린 74년의 인플레이와 不景氣였다. 그리고 74년의 그 같은 不幸을 이어 받은 75년에도 인플레이의 昂進程度가 前年보다 약간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대두되고 있을 뿐 人類最大의 厄年이라고 國濟經濟 機構 등에서 譚念의 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74년의 世界經濟가 겪어 온 苦難의 歷程과 依然히 險難하기만 할 것 같은 75년의 前途를 돌아보고 또 展望케 하는 統計들은 別項으로 몇 가지 추려 보기로 한다. 貿易收支, 失業趨勢, 經濟成長 등을 例擧한다면 貿易黑字를 상당히 많이 울

린 西獨을 例外로 하고는 모든 先進國들이 赤字 貿易에 當황하고 있다. 하기는 西獨도 貿易에서 單은 黑字였으나 國際收支面에서는 赤字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失業者는 美國을 필두로 하여 先進各國에서 例外 없이 늘어나고 75年度의 展望 또한 지난 해 이 時點에서 74年度를 展望한 것보다는 훨씬 비관적이다. 다만 작년 봄에 세계 經濟專門家들이 74년의 인플레이와 不景氣를 過少豫想하였기 때문에 그들 豫測의 信憑性이 結果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땅에 떨어졌고 그리하여 금년 1년의 經濟展望에는 지나칠 정도의 慎重性마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專門家들의 그러한 態度에서의 言行이 75年度의 經濟展望에 대해 작년 봄과는 대조적으로 不透明度를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II. 景氣循環時差와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世界景氣가 회복될 시기에 대한 豫測은 區區·不一致하고 있지만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先進國에서 景氣가 回復될 時點보다 우리나라의 그것은 늦어지게 마련인 事理이다. 또 이같은 時差는 不景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도 우리나라의 經濟成長, 輸出增加 등이 모두 先進諸國에 비해서는 異例의인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G.N.P 成長 8.2%, 輸出增加 47%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世界的 不景氣가 과연 언제쯤 回復될 것인지 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만 今年 上半期中에 回復期에 들어갈 것이란 專門家들의 豫測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下半期부터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上半期 이후의 回復說, 심지어는 명년에 이어 몇해 동안 不景氣가 長期化되리라는 悲觀論까지 없지 않다. 아뭏든 先進國의 景氣가 今年 下半期에 回復過程에 접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 波及되는 것은(약 半年間의 時差가 있을 것으로 jul잡아서) 내년 봄부터의 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景氣回復의 時期를 豫想하는데 있어서 希望的으로 앞당겨 생각하는 것은 禁物이며 특히 企業計劃의 경우에 그러하다. 물론 一個人의 생활을 營爲함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一個企業의 입장에서는 그 차질의 波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거의 1년 동안은 우리가 美·日 및 기타 先進國들보다도 많은 不景氣의 試鍊을 겪어 낼 각오를 굳게 하여야 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美·日 등 先進國들이 74년에 당해 온 不景氣의 苦難을 우리는 75년에 그 대부분을 치뤄야 할 계제로서 이는 위에서 言及한 不景氣의 時差 때문이다. 또 이 기회에 吟味되어야 할 것이 景氣循環에 대한 機敏한 對策이라 생각한다. 원래 景氣現象은 循環過程의 현상으로서 景氣와 不景氣 등이 無期限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期間이 不規則적이기는 하나 交替循環을 하게 마련이다. 즉 景氣循環過程은 回復——好況——衰退——不況의 4局面으로 나뉘지는데 이와 같은 景氣循環을 통해서 資本主義는 發展·向上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景氣變動이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필연적이며 이 景氣循環에 智慧롭게 適應하는 것이 企業經營의 妙인 것이다. 그러므로 不景氣를 企業發展의 한 契機로 삼을 수 있는 企業態勢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할 일이다.

즉 好景氣에서 恐慌에 건너 서기 前인 好不景氣의 下半期初부터 企業은 過剩施設과 過剩生産을 경계하여야 하며 그와 대조적으로 施設과 生産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時機는 景氣回復의 上半期初부터이다.

돌이켜 본다면 1930年代의 世界大恐慌은 世界經濟政策의 一大轉換을 招來시킨 歷史的 誘因이었다. 20年代까지는 經濟의 自動調節機能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불경기의 深刻度와 長期化가 스스로 調節되고 방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年代에는 그 自動調節機能이 약화되어 公황의 度가 높

아졌을 뿐만 아니라 恐慌——不景氣의 長期化 현상을 가져 왔다. 때문에 各國의 政策이 景氣回復에 적극적인 介入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주된 수단은 財政에 의한 景氣浮揚이다. 政策이 金利, 支準率, 用途選別 등 貨幣의 量的面 그리고 用途에 介入하는 金融政策만으로는 不景氣에 대처하기가 힘겹게 된 것이다.

財政에 의한 景氣浮揚이 일단 成功을 거둬 왔으며 그것은 2次大戰後의 景氣變動幅이 좁아진 것으로 立證되었다. 그러나 73년 10월부터의 오일 쇼크가 물고 온 不景氣는 體質이 달라진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74年初(歷年)부터 美國은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을 併行하여 景氣浮揚의 積極政策을 취해 보았지만 그것은 失敗作으로 決算되고 말았다. 즉 그같은 景氣浮揚策이 인플레이션이 될 뿐이었으므로 불과 半年만에 需要抑制政策으로 轉換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 불경기가 體質의으로 과거의 불경기와 달라진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데 있다. 불경기가 되면 物價는 싸지게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73년 겨울에 시작된 이번의 不景氣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란 「不況下의 物價高」이다. 그 때문에 財政 또는 財政·金融의 兩面政策으로 投資와 生産을 積極化할 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美國에서 例示되었다.

III. 世界的인 貿易赤字와 失業增大

인플레이션과 不景氣의 겹치기 受難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資源保有國과 그 消費國間의 利害가 相反된 상황하에서는 資源保有國이 유리한 입장인데다가 經濟外的인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資源消費國들은 輸入資源의 價格調節을 할 수 있는 與件이 아니기 때문에 輸入品 關聯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束手無策이다. 뿐만 아니라 景氣를 浮揚시키기 위해서 資金의 放出을 적극적으로 하면 그럴수록 인플레이션은上昇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인플레이션 抑制政策의 強行은 곧 不景氣助長政策과 같은 결과가 된다. 이리도 저리도 하기 어려운 고비에서 世界各國은 제 나름대로의 對 인플레이션 및 不景氣 打開策을 모색하고 있으나 결과는 苦戰의 連續일 뿐이다.

먼저 74年度の先進 몇개국의 貿易赤字 실태를 본다면 美國이 30億弗, 日本이 65億弗(73年은 138億弗), 佛蘭西가 36億弗, 伊太리가 70億弗 등이며 西獨만이 唯一한 貿易黑字國인 것이다.

그리고 失業統計가 또 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즉 美國은 74年末 현재 7.1%에 해당하는 650萬名이고 75년 1월에는 8.2%인 752萬9千名에 이르렀으며 다시 今年後半期에는 9%에 도달할지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日本은 經濟企劃廳推計로 약 100萬名이고 西獨은 75년 1월달 현재 5.1%인 115萬名, 74년 11월에 74萬이었던 英國도 75年 중에는 100萬名을 突破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經濟는 輸出主導型으로 過去數年間에 크게 成長해 왔으며 美·日兩國이 주된 輸出對象國인데 市場多邊化政策에 따라서 유럽은 美·日에 버금가는 輸出擴大地域으로 손꼽지 않을 수 없는 廣域市場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美·日兩國 그리고 유럽地域의 先進國들이 모두 貿易收支의 大幅赤字와 失業增大에 허덕이고 있으며 西獨만이 黑字를 記錄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75년에는 輸出對象國中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 物量으로는 韓國商品의 需要增大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IV. 輸出增進과 內需節約

前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세계적인 不景氣가 회복될 때까지는 輸出與件의 惡化狀態가 持續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失業의 增大와 세계적으로 질어져 가는 消費節約의 風潮 등이 모두 輸出需要의 沮害要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構想과 努力으로 輸出增進에 最善을 다해야 할 切實性은 우리의 經濟開發의 段階性에 있다. 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中半을 겨우 넘기고 4次 5個年計劃이 77년부터 시작될 터로서 幅넓게 展開되고 있으며 또 展開해야 할 開發의 前進速度가 쉽사리 늦추어질 수도 없는 段階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開發을 위해서 이미 많은 外資

가 도입되었으나 앞으로도 개발을 계속하는데 所要되는 巨額의 外資를 導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와 같은 外資의 元利金償還을 위한 財源調達은 주로 輸出增進에 두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外貨節約을 통한 國際收支의 惡化防止가 輸出增進과 다름없는 效果를 招來한다는 常識이 새삼 아쉬워졌다.

V. 統合, 獨創的 需要開發 등 經營刷新

以上으로서 알 수 있듯이 輸出需要가 늘기 어려운 要因으로 ① 輸出對象國들의 인플레이와 不景氣로 말미암은 消費萎縮 ② 輸入規制政策의 強化 ③ 失業增大에 따른 需要減退 ④ 消費者들의 節約運動 등이 複合되어 있으며 한편 內需部門도 인플레이, 不景氣 그리고 일기 시작한 消費節約의 자각 등이 招來시킬 需要減退를 經濟開發 需要增大가 상당히 많이 카버할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商品分野만을 본다면 현저한 消費萎縮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와 같은 國內外 與件下에서 企業이 取해야 할 經營方向 등은 業種과 狀況如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대체로 普遍妥當性이 있는 例들을 들어 본다면 ① 그룹內의 企業統合이 企業自體의 自律的인 措置로 이루어지는 한편 政策에 의한 中小企業의 系列化, 專門化가 推進實現되어야 하고 ② 메이커의 경우 코스트 切下에 특히 重點을 두는 經營合理化를 追求하여야 하며 ③ 獨創的인 需要開發로 오리지날 商法의 妙를 發揮하고 ④ 廢棄物의 再生産으로 實利時代에 들어선 消費者心理에 迎合하는 企業의 機敏性을 잃지 않아야 하며 ⑤ 稀少價値意識이 돈 많은 사람들의 消費慾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過程은 대개의 경우 일단 정돈되었음을 모든 企業運營에 反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以上에서 不景氣에 對處하기 위한 企業人의 姿勢와 經營戰略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當面한 經濟危機를 克服하고 國民經濟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政府와 企業人은 물론 국민 각자가 一致團結하여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